

## 중앙대 '조무원 정년 28세' 부당성 논란

# 행정직 급여의 절반, 인건비 줄이는 편법으로 악용

## 해임된 이광전 씨 등 4명 출근투쟁 중

최근 중앙대학교(총장 하경근·이사장 김희수)로부터 '조무원 28세 정년'으로 해임당한 이광전(28) 씨 등 4명의 부당조기정년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이들 4명의 28세 정년은 '고용당시엔 없었던' 정년을 부당하게 만든 학교측이 애초의 시정 약속을 어기고 취해진 조치로 밝혀짐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인사권이 학교재단측에 넘어가면서 재단측의 횡포와 오만이 빚어 놓은 작품이라는 점에서 중앙대 재단측은 커다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재단측은 현재 "법적으로 해결하자"며 버티고 있고 이광전(야간 교학부), 윤영희(기획실 기획과), 박안일(정경대 교학과), 최은순(교육대학원 교학과) 씨의 출근 투쟁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이다.

부당 정년 28세 철회와 원직 복귀를 요구하고 있는 중앙대 조무원들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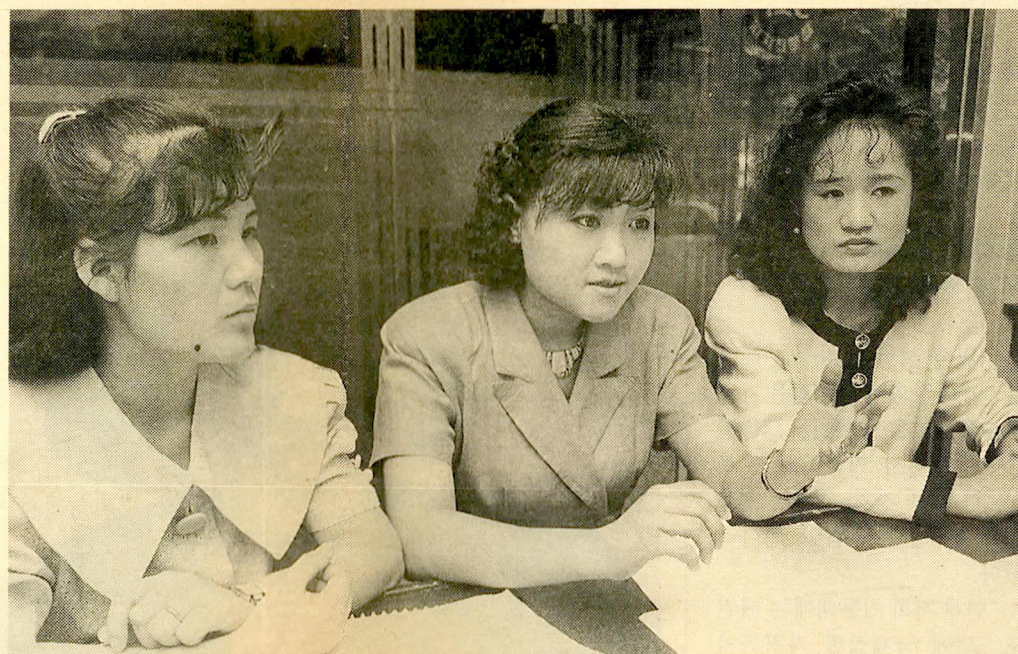
—'조무원' 직제는 학생들의 실험실습을 돕는 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일은 행정업무 아닙니까. 그렇다면 57세 정년이 합당한데 28세 정년이 나온 배경이 무엇인지요.

“저희는 각기 82.3년에

조무원으로 입사했고 당시는 정년제도 없었어요. 사실 조무원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한 일은 일반 학사업무였거든요. 나중에 안 사실은 학생들이 낸 실습비로 쓰는 조무원은 행정직 급여의 절반만 주면 되니까 뽑을 때는 '조무원'으로 하고 일은 행정 업무에 배치함으로써 편법으로 인건비를 줄인 거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학교측은 2~3년 뒤에 조무원 정년을 만들었는데 그 의도는 값싼 임금으로 쓰다가 일찍 내보내겠다는 것이 아니었나 해요.”

—그렇다면 조무원 정년이 만들어졌을 때 항의했어야 하지 않았는지요.

“물론 항의했지요. 85년에 25세 정년 공문이 돌았거든요. 저희 넷을 포함해 32명이 부당함을 알고 연명부에 날인, 총무 처장에 제출했더니 '잘못됐다'고 인정했죠. 그러나 인건비 문제로 시정이 안되는 와중에 88년에 노조가 생겨 노조에 위임한 거였고 '단서조항'을 넣어 28세 정년이라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5세를 3년 연장해 22조 규정에 '현조무원의 정년을 28세로 한다. 단, 여직원 서기보를 충원할 때는 재직중인 현조무원중에서 우선 임용한다'라고 못박았거든요. 3년 안에 다 흡수될 거라는 취지로 합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학교측은 서기보자리가 12명이나 비었는데도 지금껏



▲조기 정년의 부당성을 밝히는 중앙대 조무원 박안일·윤영희·이광전 씨(왼쪽부터).

## 노동부, 학교측에 '위법' 시정 공문 보내 인사권 쥔 재단측의 횡포 비난 빚발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다가 28세 정년으로 우리를 해임한 거예요.”

—현재 그 자리는 어떻게 충원되고 있나요.

“88년부터 즉 1년 뒤 재계약하는 '촉탁직'으로 12명을 썼고 해임된 저희 4명 자리에는 올 9월 1일자 4명을 촉탁조무원이란 이름으로 발령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 1명은 촉탁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오지 않는 실정이지요.”

—단체협약 단서조항으로 볼 때도 학교측이 명백하게 협약을 위반한 셈이 되는데 총장 이하 보직 교수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7월초 총장, 부총장, 총무처장님을 만나 시정을 요구했더니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인사권이 없어 힘이 없는데 어떡하느냐'고만 얘기하셔서. 당시 보직 교수로 협약체결시

도장 찍었던 교수님들도 '서기보가 비었을 때 조무원중에서 충원해야 하는데 안 뽑은 것은 학교측이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잘못됐다고 시인하면서 재단측의 눈치를 보느라 말도 제대로 못하고 대책마련을 할 수도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지금 요구 사항은 서기나

로 나가는 것으로 양보했어요. 이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나중엔 우리를 '촉탁'으로라도 써달라 했는데 '1~2명은 몰라도 4명은 어렵다, 나머지는 알아서 재취업시키겠다'고 하더군요.”

—촉탁으로라도 써달라 요구한 것은 굉장한 '후퇴'인데 이런 상황으로까지 갔던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얘기죠. 그때는 어떻게 해결할지 통로를 몰라 실망도 많이 했고 계속 양보했죠. 그래도 해결이 안돼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백기를 들다시피했던 거죠. 정당한 요구를 힘있게 내는데 여성민우회의 도움이 컸어요. 우리 얘기가 보도되자 정무2실과 노총 여성국에서도 '도움'을 약속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부당하다'며 힘내라고 할 때 결과를 떠나 보람을 느낍니다.”

—현재 진척된 상황이나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가요.

“학교 노조측이 복직시켜 달라는 공문을 내 16일까지 회답을 요구한 상황이고 노동부 관악사무소에도 진정서를 접수시켜 지난 2일 양측이 출두,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정무2실에도 민원 서류를 접수시켰고요. 노조측은 회답을 받아본 뒤 파업을 하든 대책을 세울 계획이고 16일 이후엔 별 진전이 없으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노동위에 낼 생각입니다. 넷이 뿔뿔 뿔뿔 힘도 나고 서로가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고 있어요. 남자 직원들이 신문을 보고 '스타됐다' '유명인사' 운운하며 따가운 시선으로 비꼰 때 가장 힘들지만 부당함을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진짜 내가 일해온 일터를 사랑하는 거란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박혜숙 기자〉